

광산구 구립도서관 복합문화 거점 변신

5개 도서관 '스페이스 브랜딩'

책만 있는 도서관 탈피

인문·예술·생태 등 특성화

감성·이야기 넘친 테마공간으로

광주 광산구 5개 구립도서관의 색다른 변신 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관내 5개 구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스페이스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 브랜딩'은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 공간을 기획하고 특화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는 시민의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2023년까지 6억 원을 들여 '5관 5색' 특성화 사업에 나섰다.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차별화해 '책 보고 읽는 행복한 도시 광산'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광산구는 5개 도서관별로 이용자를 분석하고, 주변 환경,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등을 토대로 핵심어를 설정했다.

▲이야기꽃도서관은 이야기, 예술, 공연, 공간, 상상 ▲장덕도서관은 인문, 예술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다문화 ▲첨단도서관은 자기계발, 취업, 여가, 중장년 ▲신가도서관은 숲, 생태, 환경, 자원순환이다.

광산구는 이를 바탕으로 특성화 공간을 기획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장덕도서관과 첨단도서관은 지난해 일부 사업이 완료돼 각각 '모두 모여'와 '꿈꾸는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테마



장덕도서관 인문, 예술 모임 공간 '모두 모여'.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본격화됐다.

장덕도서관은 이달부터 '모두 모여'에서 천아트, 캐릭터 라탄바구니, 소이 캔들 등을 만들어 보는 체험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인문, 예술 모임 소통, 창작활동과 토론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튜디오 콘셉트로 디자인한 첨단도서관의 '꿈꾸는 시간'은 지역 청소년, 청년의 자유로운 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래세대가 꿈을 키우고, 진로를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야기꽃도서관 '누구나 갤러리', 운남어린이도서관의 '책보고 시골'도 올해 중 선을 보일 예정이다.

'누구나 갤러리'는 시민 참여 전시 공간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결과물을 비롯해 주민이 만든 창작물을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의 '책보고 시골'은

아이들이 마음껏 떠돌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조용한 도서관의 모습을 탈피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며 책과 가까워지는 '책놀이'이다.

신가도서관은 숲을 형상화한 '읽터(읽, 터무니)'를 준비하고 있다. 자연과 공존하는 삶, 자연 속 치유와 심, 주민 간 만남의 장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광산구는 도서관별 테마를 반영한 공간 조성사업과 더불어 여기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실질적인 복합문화 거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스페이스 브랜딩 사업을 통해 5개 도서관 모두 색다른 매력과 감성이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각 특성화 공간에 걸맞은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시민의 행복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경제백신회의, 취약층 검사키트 지원

이주노동자·소상공인 등 1만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취약계층의 선제적 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검사 진단키트 지원에 나섰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2일 구청 상황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광산구 산단협의회와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등에 자가검사 진단키트 1만 개를 전달했다. 16번째 광산경제백신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으로 전국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산업단지 기업체 등에서는 노동자 자가검진을 위해 직접 판매처를 찾고 비용을 들여 진단키트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검사 진단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단키트는 산단협의회,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영세 소상공인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상용 광산경제백신회의 상임대표(창조경제 혁신센터장)은 "코로나19의 폭증세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떠안고 있다"며 "광산구 지역공동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제백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2020년 4월 코로나 발생 초기 지역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간 연대 기구다. 지난해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와 함께 민관산학 및 언론계, 종교계를 아우른 '광산경제백신회의 시즌2'가 꾸려졌다.

자발적 모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1% 희망대출, 친환경 로컬마켓, 온라인 판로지원, 소상공인 투명마스크 지원, 골목산타를 찾아라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백신을 추진해 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행복돋움판 7곳 '봄편' 새단장

광산행복돋움판이 봄의 희망과 설렘 가득한 편지를 시민에게 전한다.

광주 광산구는 "다가오는 봄을 맞이해 광산행복돋움판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돋움판은 지난 1월 24일부터 진행된 문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에 멋진 디자인을 입혀 광산구청사, 광주송정역, 수완문화체육센터 등 총 7곳에 설치했다.

당선작은 윤선혜씨의 '눈부신 희망 전하러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땅 위로 새싹 올림'으로, 광산구청사와 수완문화체육센터, 쌍암공원, 아호센터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작품은 "봄이 오면 연약한 새싹이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마침내 솟아오르듯 그동안 힘든 시절을 잘 견뎌온 시민들을 응원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의 끝, 엔데믹을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광산구청사 외벽에 설치된 '광산행복돋움판'

당선작 외 "스포츠로 초록빛 꼭꼭어서 이 봄, 네 마음속에 물들이고 싶다", "눈썹 밑에 숨은 봄, 활짝 웃으면 너도 꽃나도 꽃" 등의 행복글귀는 광주송정역 전광판, 수완호수공원(우체통) 등에 설치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별밤 미술관, 봄 마중 서양화 향연

5곳, 3월 한달간 봄맞이 전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무료

광주 광산구 '별밤 미술관'이 아름다운 서양화 작품으로 봄의 시작을 알린다.

2일 광산구 5개 별밤 미술관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 달간 희망찬 봄의 설렘,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서양화 전시에 들어간다.

별밤 미술관 in 첨단(쌍암공원)은 박구환 작가의 '만개하여' 전시를 선보인다. 벚꽃이 활짝 핀 나무 한 그루로 봄의 절정을 담아낸 그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풍영정천변길공원의 별밤미술관 in 수완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미로 밤을 수놓는다. 강동권 작가의 '사랑의 빛' 전시다. '현대인' 다양



한 시각에서 풀어낸 전시도 진행된다. 별밤 미술관 in 운남(운남근린공원)에선 현

대인의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가족을 표현한 박정일 작가의 'Family' 전시가 열린다.

신창역사근린공원에 있는 별밤 미술관 in 신창은 설교는 작가의 'Flimsy Fragments' 전시로 시민을 맞이한다. 위치와 연결이란 핵심어를 바탕으로 모바일로 수많은 정보와 이미지를 접하는 현대인을 그려낸 작품을 전시한다.

별밤 미술관 in 선운(선운지구근린공원)은 김계진 작가의 '일상 그리고 행복' 전시를 연다. 카라꽃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행복, 마음의 평화를 공유할 예정이다.

별밤 미술관 전시는 무료이며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소춘아트팩토리 (062-960-3688)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성평등 행복광산' 구현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중점 추진

광주 광산구는 "성평등 행복광산" 구현을 위해 올해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와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광산구는 구청 전반에서 성평등이 이뤄지도록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를 정비하는 등 '성주류화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광산구 성평등 수칙'을 제작, 배포해 전 직원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양성평등위원회 등 '젠더 거버넌스'도 활성화한다.

특히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광산구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 '성인지 정책'을 포함시키고, 여기에 '성평등 공감' 게시판을 신설해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사안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

망서비스, 온라인 홍보도 진행 중이다.

또 주요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는 실질적인 성인지 정책 개선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부서 성과에 반영해 평가하는 부서차 책임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및 젠더폭력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 모두가 평등한 광산구 실현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상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아니로마트 062)373-3235	아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